

1차만 5번 붙은 8수생의 서울 초특 합격수기

-달리는 강아지-

제가 드디어 합격 수기를 쓰게 될 날이 왔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1. 간단히 제 수험생활을 소개하자면

- 초수 1차 탈락
- 재수 1차 탈락
- 3수 평가원 최탈 (1차 3.33+ / 0.33차이로 불합)
- 4수 1차 탈락
- 5수 경기도 최탈 (1차 7.67+ / 0.67차이로 불합)
- 6수 사립 최탈
- 7수 평가원 최탈 (1차 컷트라인 점수)
- 8수 서울 최종합격 (1차 5.66+)

1차만 5번(공립4, 사립1)붙을 정도로 1차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지만 유독 2차에서는 운이 따라주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 8수만에 붙었으니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끝까지 하면 된다는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개로 말씀드리면 저는 초등학교때 뚜렛장애가 생겨서 지금까지 계속 약을 먹는 상태입니다. 아마 2차에서 계속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뚜렛으로 인해서 저도 모르게 면접이나 수업실연때 나왔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5수때 경기도 지원시 1차에서 7.67+ 이었지만 2차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임용을 포기해야하나 싶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수업실연은 동작을 크게크게, 목소리를 또박또박하려고 계속 노력하였고 그 결과 8수 끝에 합격을 이뤄냈습니다!

2. 강사 추천

특학 - 박문각임용의 허쌤 강사님

진짜 여러모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싶은 분입니다. 1차와 2차에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기본이론을 제외한 모든 강의를 직강으로 수강하고, 1차 합격후에도 2차 피드백을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일반 강사분들과는 살짝 다른 커리큘럼으로 1년 강의를 진행하시는데 그 중에

서도 특히 연도별 기출분석(강추!), 7-8기출변형모의고사, 9-10실전모의고사는 꼭 수강 추천드립니다!!!

연도별 기출분석 : 제가 8수를 하면서 여러 강사분들의 기출분석 강의를 들어보았지만 이렇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기출분석을 하시는 분은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뭔가 제 지식의 패러다임을 바꿔준 강의였습니다. 한 문제를 볼 때도 여러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다양한 접근법을 알려주시고, 문제를 거의 뭐 해부하는 수준으로 분석을 하신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기출분석과 더불어 파생되는 개념까지 한 번에 습득하여 5번의 1차 합격중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강의를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해설지도 각론서에 근거하여 매우 자세하고 가독성이 좋게 되어서 보기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타 강사분들은 영역별 기출분석을 자세하게 한다면 허쌤은 거의 유일하게 연도별 기출분석을 빠르게 시작하여 길고 자세하게 하시는 편입니다. 물론 초수에게도 정말 좋지만 만약 자신이 재수, n수 이상이라면 꼭 들어보기를 권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놓쳤던 부분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7-8 기출변형모의고사 : 허쌤만의 특별한 커리큘럼중 하나입니다. 다른 강사분들은 영역별로 기출변형문제풀이를 진행하시지만 허쌤은 영역별이 아닌 전체 영역을 기출변형 모의고사로 진행해서 다른 수험생들보다 일찍 실전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설명회를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적중률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나 더 큰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첨삭이 진짜 자세합니다. 이것도 제가 8수를 하면서 느낀건데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한 첨삭을 해주시는 강사분은 노랑진에서 허쌤이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9-10 실전모의고사 : 기출변형모의고사에서는 기출문제를 변형하여 문제를 풀었다면 실전모의고사에서는 신각론이라던지, 출제자 분석등을 통하여 새로운 문제들을 제시 해주십니다. 이 강의 또한 마찬가지로 자세한 해설지, 꼼꼼한 첨삭과 피드백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안지 작성 방법도 첨삭을 통해 자연스럽게 터득했고, 적중률도 매우 좋아서 제가 1차를 5번이나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1차 준비에서는 허쌤 직장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직강이 끝나면 직장생 스터디가 운영됩니다. 서로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수업 및 기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서로의 사고가 확장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차 피드백 : 1차가 끝나는 동시에 바로 2차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초등과 중등 복수전공이라 그전에는 초등 1차가 끝나면 남은 2주동안 중등 1차공부를 하였지만 올해는 과감히 포기하고 초등 2차에 집중하였습니다. 허쌤과 스터디원과 함께 2차준비를 하며 면접과 수업에 대해 피드백을 받고 방향을 다시 잡으며 복기된 기출문제

를 다시 연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서울은 구상형에서 바뀐 시책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허쌤이 강조하신 부분이 거의 그대로 나와서 구상형 답변은 막힘 없이 진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실연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나와서(일상생활활동;) 조금 당황하였지만 피드백+스터디를 통해 막힌 부분을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성적 성찰도 허쌤과 함께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문제를 예상했는데 적중한 그대로 나와서 성찰도 막힘없이 대답하였습니다. 지도안은 솔직히 제가 잘 쓰지 못한 것 같아서 조연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많이 써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는 것을 매우 좋아하여 혼자 끈기있게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강의 외적인 부분에서 멘탈잡거나 공부방향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주시고 붙잡아주셔서 합격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허쌤 정말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과정 - 박문각임용의 위재권 강사님

재수 이후에 초과정의 중요성을 느껴서 처음에는 타 학원의 강의를 수강하였는데 양이 정말 방대하고 과하다고 느껴서 박문각 위재권 강사님의 단권화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핵심만 딱딱 잡고 부담스럽지 않은 강의 시간이 배분되어서 들었는데 초과정에서 정말 난해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어느정도 선방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파이널 족집게 강의에서도 좋은 적응률을 보여주셔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없고 핵심만 파악하길 원하는 분들은 위재권 강사님 매우 추천드립니다.

3. 공부 방법

저는 혼자서는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감시를 해야 조금 하는 스타일이라 절대 집에서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공부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학원에서는 강의를 들으면 자습실이 제공되었기 때문에 보통 자습실이나 1인용 책상이 구비된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사실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독립적이거나 장의존적인 사람,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인 사람 등 모두의 공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특정지어서 단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확실한건 자기만의 공부법을 일찍 찾고 그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저는 허쌤의 도움을 매우 크게 받았습니다. 생활적인 부분에서 공부 습관과 계획표를 매주 점검받고 상담을 받으며 저만의 공부스타일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5번의 1차 합격중 2번 이상 +5점이라는 좋은 점수로 1차를 합격할 수 있었고 올해 최종합격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출분석에 대해 궁금해하실텐데요. 저는 영역별로 우선 한번 훑은 후에 연도별로 기출분석 문제를 무한반복하였습니다. 태블릿으로 문제를 보면서 계속 풀어보고, 제공받은 해설지를 보며 틀린 부분을 다시 점검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체크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서술형인 13~24년도 문제를 유초중 모두 보았고 객관식은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1개년도를 풀 때는 꼬박 하루이틀이 소요되었지만 반복하다보니 하루에 2개년도 정도는 보고 스스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죠. 그래도 기출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눈에 질릴 정도로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꼭꼭 무한 반복 하셔서 눈에 최대한 익히시길 바랍니다. 예전의 기출문제를 보고 최근에 다시 풀었을 때 '아! 이거 몇 년도에 어디에서 나왔던 문제구나!' 싶을 정도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정도로 기출문제는 중요합니다.

총론, 점자, 법은 하루에 합쳐서 1시간 이상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출문제를 토대로 나왔던 내용을 한번 훑어 보면서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 후에 총론같은 경우는 하루 1번 쭉 훑는 식으로 보며 눈에 익혔고 점자와 법도 마찬가지로 쭉 훑는 식으로 보았습니다. 끊어서 나눠보는 것 보다는 한번에 쭉, 매일매일 훑는 것이 더 잘 외워지더라구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4. 스테디?

솔직히 1차는 스테디가 필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스테디를 해보았지만 결과가 좋았던 적이 있고, 중간에 파토난 스테디도 있었습니다. 어느정도 공부의 방향이 잡히고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혼자만의 공부방법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테디가 잘 맞는다면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2차는 피드백이 필수입니다. 혹시 스테디를 못 구하신다하더라도 학교 선배나 아는 합격생들에게 부탁을 해서 꼭 피드백을 받길 바랍니다. 자신의 강약점을 알고 이 것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은 매우매우매우! 중요합니다!!

5. 끝으로

감사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허쌤과, 허쌤 직강을 같이 수강한 ㅇㅎ, 자ㅇ, 스즈선생님 그리고 제가 이름을 기억못하는 여러 선생님들(죄송합니다!)께 정말 고맙고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8번의 수험기간이라는 긴 시간동안 끝까지 응

원해준 우정하는 친구들과 친척분들과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도 이 영광을 바칩니다;))

처음으로

마이페이지

합격조회

합격조회

달리는강아지 님.

2025학년도 [공·사립 동시지원] 특수학교(초등) 교사(일반) 임용시험 [분야] 특수(초등)교사

응시시험

2025학년도 [공·사립 동시지원] 특수학교(초등) 교사(일반) 임용시험 [분야] 특수(초등)교사

합격조회

합격확인 (응시번호)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p.s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공개댓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비밀댓글로, 그리고 meen2729@naver.com로 메일을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